

같은 종류의 두 사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굶어 죽
게 내버려두고 또 어떤 사람은 지독히 큰
부자가 되게 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질
병과 고독과 기아와 사망을 보
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시카고 시내에서
2.4km 떨어진 조그만 공
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 공원은 버그하우스 광장
이라 불립니다. 이 공원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누구라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연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단에 올라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주제를 가
지고 꽤 오랫동안 말을 하
고 있었습니다.

자,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제게 1분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여
러분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 만일 당신이 저 위에 있다면 나
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기적이
고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덩치가 큰 골목대장이
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지옥으로 꺼져버리기 바
랍니다! 나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또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힘이 있거든 지금 당장 나를 죽여 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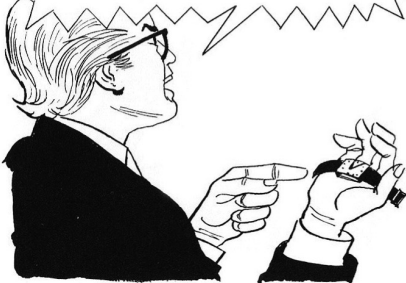


거짓말 덩어리인 저 성경책이 진리라면 이제 당신은 나를 당장 여기서 내려쳐서 죽여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온 우주가 보는 데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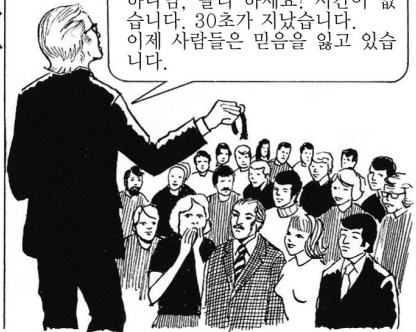


이제 당신에게 딱 1분을 주겠습니다. 이 1분 동안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내릴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광신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우리를 세뇌시키려 했음도 곧 알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딱 1분을 주겠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청중들 가운데 흘러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놀라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절대로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당신을 믿게 하려면 당장에 나를 죽이기 바랍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 청중들 가운데 아직도 하늘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분이 나와 그렇게 믿는 이유를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믿으며 이 청중들에게 리이 상식으로 왜 하나님이 정말 신임을 끈장 죽이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간이가 스스로 바보짓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겠는데...

젊은이, 이제 당신이 연단에 서서 이야기해 보시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무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매일 정오에 시내에 가서 두 시간 정도 일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일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기에 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몇 분 전에 옆길로 들어서서 걷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닐곱 살 정도 되는 조그만 소년이 골목에서 나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 해진 옷을 입고 먼지투성이에 머리도 전혀 빗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서 저를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





저는 그 아이를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필쩍 뛰어 서는 제 앞으로 와서 뿔뿔 손을 내밀며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손으로 그 아이를 휘 던져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아이는 작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오히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 주고 목욕도 시켜 주고 새 옷도 사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형처럼 그 아이를 대하고 싶었으나 그 아이는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학교로 돌아가고 있다. 너를 도울 일이 있지?

이 나쁜 놈!
네가 무슨 도울 게 있다고!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단다. 나는 네 친구가 되고 싶어. 먹을 것과 새 옷을 사 줄까?



나는 흰 옷 입고 구두를 잘 닦은 놈들을 완전 미워해! 흥,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지!

나랑 싸울래, 이 골목대장아!

이 나쁜 놈, 질까 봐 비겁하게 구는군!

너는 나보다 크지만 지금 겁에 질렸어! 이 병아리아! 이제 달려들어 봐. 내가 손 좀 봐 줄게!



마침내 저는 그 아이를 남겨두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만... 그 아이는 100m 이상 저를 쫓아오며 언제라도 덤빌 듯이 저를 쳐다보며 제게 욕을 했습니다.



저 골목에서 그 아이는 저의 순수한 사랑을 내팽개치고는 쓴 소리로 제게 욕을 하며 옷과 음식을 사 주겠다는 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고는 싸우자고 하며 온갖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에 들어와 보니 이분이 자기의 조그만 주머니를 휘두르며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거지 소년과 더러운 신사...같은 종류의 두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왜 하나님이 즉시 자기를 쳐서 죽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누군가가 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목에서 계속해서 저와 싸우자고 하던 그 아이를 제가 즉시 내려지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고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 작은 아이는 먼지로 더러웠으며 그래서 저는 목욕을 시켜주려 했습니다. 이분 역시 죄로 더러워졌으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기에 저는 새 옷을 사 주려 했습니다. 이분 역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누더기는 바로 그분 자신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다 갈레와 같습니다.

이쯤에 그 무신론자는 슬며시 그 군중들 사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전적으로 의롭고 정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의(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작은 아이는 배가 고파왔습니다. 비록 말을 안 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배고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영양실조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려 했으나 그 아이는 제 호의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로 배가 곱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그분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괴롭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그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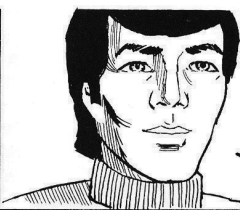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즉시 내려쳐서 죽이지 않은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분 같은 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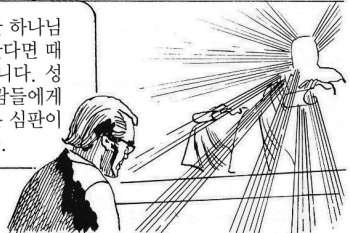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3:9)



하나님은 그분이 말한 1분 사이에 분명히 그분을 내려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므로 그분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만일 그분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때가 되어 그분은 죽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히9:27).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이지 않으면 그분은 곧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을 여기로 초청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이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잘 들려주는 전도지를 가지고 있고 원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기도 전에 즉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들만 수용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 속의 편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편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의 지성은 온 창조 세계에서 가장 큰 현상들 중의 하나입니다. 지성은 알고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계획하고 계획들을 실천합니다. 사람들은 컴퓨터와 로켓을 개발해서 우주인들을 달에 보내고 다시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창조적인 지성을 통해 사람은 여러 가지 악성 질병들을 치료하는 약들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원자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청난 지성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같은 존재를 무(無)에서 창조하거나 유(有)에서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물은 창조자보다 덜 복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더 못한 존재나 지성이 당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은 당신이 우연히 생성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따라서 아무 목적도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극도로 복잡한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적인 지성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 우주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질서 체계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신비들 가운데 하나는 원자입니다. 원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건축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의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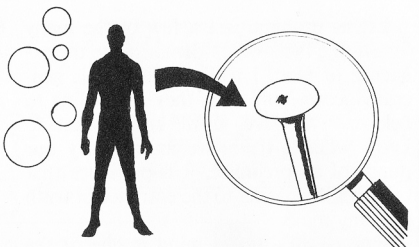
조자의 지성과 권능으로 인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들은 아주 작아서 가장 작은 수소 원자 백만 개를 나란히 놓아도 이 책자의 종이 한 장 두께 만큼도 안 됩니다. 물 한 방울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원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속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원자 안에서 실제로 딱딱한 고체 부분은 단지 원자의 1조(兆)분의 일 즉 10의 12승의 1에 불과합니다. 원자가 이처럼 빈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한 예를 봅시다. 2m 되는 사람에게서 원자의 빈 부분을 모두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고체 부분은 머리핀보다도 훨씬 작은 먼지 하나 정도도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원자 안의 빈 부분을 모두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고체 부분은 가로세로 높이가 30cm 되는 정육면체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저자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시8:4)

〈원자핵의 구조〉



원자는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를 말하는데 각각의 원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균형을 유지합니다. 양 전하를 띤 양성자의 숫자와 음 전하를 띤 전자의 숫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원자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핵에서 발견되는 핵력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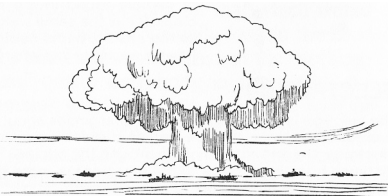
응집력입니다.

원자의 핵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창조 의 기적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물리에서 배우듯이 같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원자의 핵에서 창조자께서는 전혀 다른 법으로 이 같은 현상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같은 전하를 가진 양성자들이 핵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알 수 없는 신비의 엄청난 응집력에 의해 굳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에 대한 가장 신비한 사실 중 하나로서 '우주의 근본적인 신비'라 불립니다. 만일 이런 현상이 없다면 온 세상 만물은 다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를 지탱하는 시멘트 같은 힘은 중력이다. 원자를 함께 모으는 것은 전자기적인 견인력이다. 그러나 원자의 핵을 다 같이 모으는 힘은 현존하는 물질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무시하는 신비의 힘이다. 이 힘은 지금까지 사람이 이해한 다른 모든 힘과 다르므로 제대로 그것을 묘사할 방법이 없다.”(Robert E. Marshak, "PIONS", American Scientific Magazine).

창조자의 큰 손에 의해 마치 큰 스폰지처럼 돌돌 말려 압축되어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보통 핵에너지라 불리며 이 에너지는 위력이 대단해서 원자 폭탄 하나가 수천 톤의 TNT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겨우 관찰할 수 있는 이 작은 원자에 이 같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의 우화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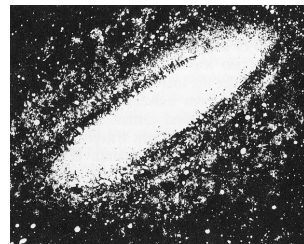
원자의 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지적 설계가 들어 있고 창조자의 놀라운 힘이 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원자 이야기를 그만두고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우주는 너무 광대하여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그 크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km를 움직입니다. 이 같은 광속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달까지 2초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광속으로 5시간을 날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광속으로 4년을 날아가야 겨우 가장 가까운 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광속으로 10억 년을 날아가도 아직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한쪽 끝에도 다다르지 못합니다. 사실 우주가 얼마나 더 뻗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안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은하계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별은 공통적인 법규와 설계에 의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우주가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돌고 있다고 말한다면 - 즉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떤 설계도 없이, 창조자도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한 균형 속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당신의 이성엔 큰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혹은 당신이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람과 우주의 모든 것이 죽은 물질에서 나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



지어 이런 물질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주 대폭발’ 즉 빅뱅 이론을 믿는 분들도 초기의 그 엄청난 밀도의 콩알만 한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 콩알 같은 덩어리가 퍼져 나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믿을 뿐입니다.

진화론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마술봉만 있으면 지금의 사람과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의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마술봉과 또 이 마술봉만 있으면 진화론이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중대 결점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공식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대로 우주가 100억년 되었다고 가정한다 해도 사람과 같은 복잡한 창조물이 그 시간 안에 저절로 진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만 개의 부품을 상자에 넣고 흔들어서 자동차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10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컴퓨터를 만드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이런 것들은 사람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뇌에만 100억 개의 세포가 있고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1개의 세포에는 백만 개의 분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분자는 그 안에 평균 약 만 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이 적어도 10의 24승 개의 건축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주가 100억 년 되었다는 것은 곧 10의 17승 초를 뜻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1초에 하나씩 모두 정확하게 바르게 배열된다 해도 그 시간으로는 사람의 몸의 원자들 중의 극히 소수만을 배열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 몸의 모든 원자를 다 배열하려면 적어도 100억 년의 천만 배의 시간이 있

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의 모든 원자들이 우연히 스스로를 배열하여 진화해서 사람 자체가 되는 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 우주 공간 전체가 진화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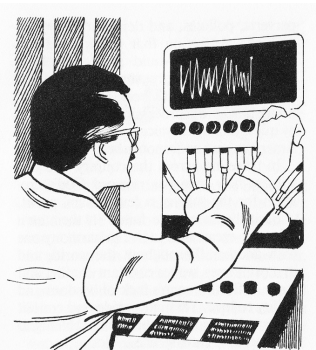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종교적인 감정은 자연계의 법칙을 볼 때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율동한 지성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하면 사람의 조직적인 사고나 행동 체계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다.”

수학자인 진스(Sir James Jeans)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큰 기계라기보다는 큰 지성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지성은 더 이상 물질 영역으로 파고드는 우연한 침입자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물질 영역의 창조자와 통치자로 맞아들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에르케스 관측소의 천문학자인 프로스트(Edwin D. Frost)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나선형의 은하계들의 놀라운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거기의 법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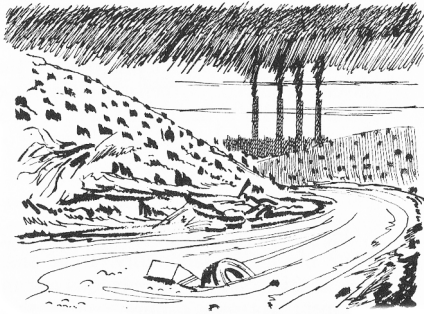
“목적적으로 가득 찬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나는 그런 목적을 제공하는 존재가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주에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고차원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을 주신 존재가 만든 산물임이 틀림이 없다.”



* * *

사람은 실험실에서 사람을 창조해 내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 그것

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 때에 엄청난 설계와 지성이 있었듯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도 엄청난 지성이 있었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생명체의 질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성의 설계의 산물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성을 이처럼 놀랍게 만들어 기능을 발휘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을 사람의 것들과 비교해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무한한 완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향상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그것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곡식들의 대부분은 가공을 통해 영양분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또 그 안에는 농약 같이 좋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서도 영양 결핍이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단 돈 몇 푼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 놓은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무(無)에서 창조할 수도 없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사람이 지혜가 없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 자기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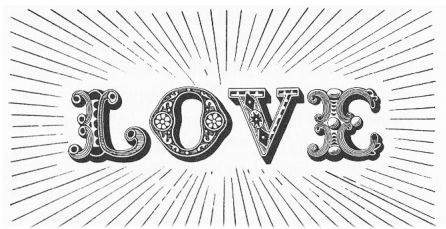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가족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

는 자녀들,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창조 세계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인류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 같이 되고 자신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반역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거나 혹은 그분을 떠나서 영원을 지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단지 이 자유 선택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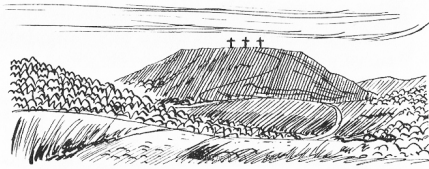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사람의 모습



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들로 인한 완전한 희생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반역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당연히 하나님 곁을 떠나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역과 증오와 무관심과 고립 상태를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서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솔직하게 이런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존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지도 못하였도다.”

또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 * *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우리가 언급할 마지막 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으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스스로의 말로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저는 제 힘으로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는 지금 180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지금 제게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분께서 법범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1-9).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혈레벌떡 뛰어와서 막 떠나려는 기차에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숨이 가빠 혈떡이며 땀을 닦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놓칠 뻔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네! 이 열차를 놓쳤으면 네 시간이나 무료하게 기다릴 뻔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씩니다.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된 길로 가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작점과 종착지를 알고 가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당신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 ◆ 세상의 슬픔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습니다.
- ◆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영원히 삽니다. 다만 종착지가 다를 뿐입니다.
- ◆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 ◆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당신은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추천도서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한영대역·스터디바이블·큰글자성경·작은성경·박사성경 등

- ▶ **구원 바로 알기(CD포함)** 정동수 외
-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 ▶ **천주교의 유래** 우드루오 외
- ▶ **내가 왜 믿어야 하죠?** 김재욱(생명의말씀사)

추천사이트

한국창조과학회 www.kacr.or.kr 창세기해답 www.AnswersInGenesis.org
생명의길 www.WayOfLife.org 사랑침례교회 www.cbck.org